

“일당독점 깨지 못하면 야권도 호남정치도 희망 없다”

야권 재편 '태풍의 눈' 부상 천정배 의원 인터뷰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이 야권 재편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 의원은 당선은 지역 정치권과 야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광주와 호남 민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도 천 의원의 당선을 계기로 신당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일보는 지난 2일 광주 서구 동북아전략연구소에서 천정배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향후 정치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들어보았다.

임동옥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당선 직후,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창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 신당은 아니다. 정치 세력화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뉴 DJ', '젊은 DJ'를 모아 광주 8곳의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약속드린다. 전남과 전북 등을 포함, 호남 30곳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것은 추진하는 목표다. 다만 수도권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정치적 상황을 봐야 한다. 수도권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다. 시간이 많지 않

▲호남은 분열의 위험이 없다. 새정치연합 정치적 독점 기득권자들의 논리다. 호남 독점에 위험이 되는 것이 분열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호남 자민련”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낙인찍기다. 일단 내가 호남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당이 아니고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형태인 호남 자민련이 될 수 없다.

-당이 아닌 정치세력화에 호남 민심이 동의한다고 보는가.

▲야권 내의 경쟁 구도 형성에 호남 민



정치 세력화 과정...신당은 총선 이후 모색

야권, 총선서 경쟁하고 대선서 결집해야

다. 인재 풀은 충분한지.

▲정당이 아닌 정치 세력이라는 점에서 내년 4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인지도는 낮을 수 있지만 자질이 있는 광주지역 인재 풀도 넓다.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서 기성 정치인은 배제할 것인가.

▲나도 탈당을 한 기성 정치인이다. 기성 정치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치권 내외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새롭고 참신한 인물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싶다.

-신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 호남에서 20석 이상 당선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이후 신당 창당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천 의원은 그리는 총선과 대선의 그림은.

▲총선에서는 야권의 경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야권 연대도 후보단일화도 형태가 어떻게 되든 야권이 총결집해야 한다. 총선에서는 경쟁하고 대선에서는 봉착야 한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에 따른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십이 적극 동의한다고 본다.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이 가져먹는 구도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을 포함, 새정치연합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다고 보는지.

▲호남과 당내에도 좋은 분들이 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 가겠다.

-유력 대선주자가 없다. 정치세력화의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 광주와 호남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한다. 현재 대선 주자가 없더라도 그 민심을 기반으로 나아간다면 한국 정치사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미래를 역동적으로 봐야 한다.

-호남 민심은 될 원하고 있다고 본다.

▲정권 교체를 넘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정의로움 개혁정권 수립이다. 여기에 호남에 대한 소외와 낙후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다. 그동안 표만 추고 무시당했다는 분노가 크다. 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권에 근접하는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물갈이에 대한 입장은.

DJ 권유로 정계 입문 안산서 4선 지내

천정배는 누구?

신안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대입 예비고사에서 인문계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호남의 천재'로 젊은 시절부터 유명세를 떨쳤다. 18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법관 임용 받기를 거부하고 변호사가 됐다.

인권변호사 활동에 나선 천 의원은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1995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을 맡으며 정계와 인연을 맺은 그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신기남 의원과 함께 정풍운동을 펼쳐 '천·신·정'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핵심 역할을 했던 천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천 의원은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2010년 1월 국회로 복귀했으며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2012년 총선 때에는 지역구를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서울 송파구로 옮겨 46%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석패했다.

천 의원은 광주로 내려와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다. 2013년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 '범무법인 해마루'를 열었고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때 출마를 내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김한길·안철수 지도부는 경선원칙을 철저히, 권은희 의원을 전락 공천했고 천 의원은 결국 출마를 접었다.

정치부임을 거듭하던 중 이번 4·29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서 '호남 정치 복원'과 '야권 재편'을 기치로 무소속 출마를 강행, 새정치연합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물갈이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 또 내가 적극 나서겠다. 물론 좋은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세력 대 세력으로 맞서 나가겠다.

-보궐선거 당선으로 5선이 됐다.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생각은.

▲중진은 정치적 리더십과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 지역 정치권 구조가 초재선이 많고 중진이 적은 피라미드식이 돼야 하는데 반대 모습이다. 좋은 분도 있지만 물러나야 할 분이 꽤 있다고 본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신당론이 나오고 있다.

▲아직 잘 모르겠다. 광범위하게 서로 소통해야 하고 민심의 추이를 봐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정치 세력의 정체성은.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는 인사들은 사절한다. 생각이 바르고 지역과 사회 발전에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한 뉴 DJ들이 필요하다.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라는 큰 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에 따른 유연성도 발휘하겠다. 뉴 DJ와 경륜 있는 인사들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국민의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사회적 기득권자 집단인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야권이 쇠신한다면 충분히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야권의 쇠신은 광주 서구 을에서 시작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지금 개헌 문제를 꺼내면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개혁정권 창출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선거제도 개편은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답이다. 의원정수 증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3년 광주에 내려왔다. 광주 국회의원 도전을 생각했었는가.

▲당초 그런 계획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총선 낙선이 있었고 야권으로는 대선 패배가 있었다. 광주와 호남에 길을 묻고, 또 찾고 싶었다. 지난 3년 동안의 정치적 공백기에 광주에서 깊은 성찰을 했으며 보궐선거

지역 정치권에 물러나야 할 중진들 꽤 있어 새정치연합 창당 버금가는 쇠신만이 살 길

-새정치연합이 위기다. 조언을 한다면.

▲창당에 버금가는 전면 쇠신에 나서야 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정책연구원을 최고의 경제가로 영입,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전당원 투표제 도입 등 당내 시스템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계파 패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천정배-문재인'의 대결 구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문 대표는 선거 이전이나 이후에도 광주 민심의 추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선거 결과는 광주 유권자들이 새정치연합을 버린 것이 핵심이다. 천정배가 문제가 아니다.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큰 경종을 울렸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다. 새정치연합은 잠시 '빠를 낀 혁신' 등을 운운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민선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친노 계파주의에 대한 입장은.

▲정도의 문제다. 새누리당은 공존을 위해 계파를 넘어선다. '선당, 후계파'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이를 잘 대변한다. 새정치연합은 계파가 우선하고 당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단순한 계파가 아닌 계파 패권주의다.

기회가 와서 정치 생명을 걸고 도전했다.

-무소속 출마 배경은.

▲지난해 7월 재보선에서 당이 패배했는데 아무런 쇠신도 반성도 없었다. 새정치연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광주 민심에 새정치민주연합 독점 패권 체제를 깨지 않으면 호남 정치와 야권에 희망이 없다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 이번 보선에서 야권 재편의 획기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걸고 보선에 출마했다.

-그동안의 정치 역경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 있다면.

▲여러 번 실수가 있었다. 우선 열린우리당 창당을 들 수 있다. 당시 분당을 원하지 않았다. 민주당 안팎의 개혁세력을 결집, 의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결국 분당이 됐다. 책임이 있다. 원내대표 당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차기 대선 도전 의사는 있는지.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놨다. 개인적 욕심을 버렸다. 정치적으로 할 만큼 한 사람 아닌가. 주어진 능력만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

/사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백내장 4층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